

'전공의 90% 파업' 화순전대병원 수술 40%·입원 18% 줄어

전공의 파업 10일째

96명 중 89명 진료 거부 정부 "현장 조사 후 조치" 의사국서 8일로 한주 연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파업 기간 장기화로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소재 대학병원인 화순전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10명 중 9명의 파업 참여로 수술 건수가 40%가량 줄고 입원 환자는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공의 수련 병원 중 하나인 화순전대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 96명 가운데 89명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에 동의, 진료를 거부하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응급실·중환자실 담당 전공의들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전공의들의 파업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지난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파업에 참여 중인 전공의들에게 진료 업무 복귀를 명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지역·의대 신설·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비롯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화순전대병원의 경우 지난 주 수술 건수가 파업 이전보다 40%가량 줄고 입원 환자 규모는 18%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화순전대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계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수술



지난 31일 의료진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에 실려온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건수가 집단 휴진 이전과 비교해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교수 등 의사들의 피로가 누적돼 정상적인 수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어 "수술 규모 축소에 따라 급한 환자 우선 수술이 진행되고 나머지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거나 수술 일정을 미루는 등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화순전대병원 병상 이용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670병상을 보유한 화

순전대병원은 통상 600병상이 사용됐으나 근래 들어 500병상 수준으로 환자가 줄어들었다"며 "환자 감소 역시 전공의들의 휴진 여파"라고 설명했다.

전남에는 전공의 113명이 화순전대병원과 국립나주병원, 순천 성가톨릭병원에서 수련 중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나주병원은 전공의 9명 중 3명, 성가톨릭병원은 전공의 5명 전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이들 병원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진료 업무 복귀 명령에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주요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한 후 고발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강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알립니다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020년 9월

알베르 카뮈 '페스트'

광주일보사와 최진석(사단법인 새말새물길 이사장)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한 달에 한 권 책 읽기'가 선정됐습니다. <관련 기사 16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카뮈의 '페스트'는 전염병으로 폐쇄된 도시 속 다량의 인물군상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독한 어떤 것과 싸우는 중이다. 코로나19다. 잘 존재하려면 긴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독한 어떤 것과 싸우는 중이다. COVID-19다. 오래 전 유럽에는 페스트가 돌았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페스트와 싸웠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다. 카뮈의 말을 직접 듣는다. "나는 페스트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게 겪은 그 속박할 듯한 상황과 우리가 살아낸 위협받고 유배당하던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한다. 동시에 나는 이 해석을 존재 전반에 대한 개념으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거의 누구도 감명시키지 않을 선량한 사람이란 방심을 안 하는 사람이다. 방심하지 않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고, 긴장해야 한다. 잘 존재하려면 긴장할 필요가 있다.

先州日報社

전남 확진자 7명 중 1명 '음성→양성'

20명 달해...자가격리 수칙 지켜야

전남 코로나 19 확진자 가운데 1차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가 7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정해진 자가격리 기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재검사 끝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모두 20명에 달한다. 지역감염 사례 17명, 해외 유입 사례 3명이다. 전남지역 코로나 19 재확산 시점인 8월 17일 이후 이날까지 나온 재양성 사례만 15건(모두 지역 감염 사례)에 이를 정도로 최근 들어 재양성 사례가 급증 추세다.

누적 확진자가 145명(해외 유입 26명 포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7명 중 1명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2주 사이 '음성→양성'으로 검사 결과와 바뀐 재양성 사례였다는 얘기가.

최근 재양성 판정 사례로는 전남 122번

이 잘 알려져 있다. 신안지역 목사로 지난 15일 보수단체 주체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 환자는 애초 지난 18일 목포기독병원에서 진행된 1차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오한·장염 등 증세가 나타나 재검사를 받았고 지난 2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전남 123번, 133번, 139번, 140번, 142번(이상 순천), 144번(화순), 145번(광양) 환자 역시 재양성 판정 사례다. 이들 가운데선 1차 검사 이후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 준수로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 방역당국 관계자는 "1차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통상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 준수의 의지가 약해지면 다시 접촉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양성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만큼 1차 검사 후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허위 진술·자가 격리 위반자 지원금 중단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 계획

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 방해사범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중단하고, 구상권 청구와 사법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광주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일탈로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확진자 등에게는 긴급 생

계비, 재난 지원금, 세금 감면, 공공요금·임대료 인하 등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탈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처벌하기 위해 가칭 '코로나19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김중효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법률가·감염병 관리지원단·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광주 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 46건을 고발조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 가능"

"하루 속히 업무 복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휴진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계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와 관련해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었던 국내 확진자 수가 4일간 200~300명대로 줄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환경부 공고 제2020-739호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 제4조제2 및 제15조, 「토지이용규계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의견수렴(제1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2020. 09. 01.
환경부장관

- 목적: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설명회(주민설명회) 및 의견제출 기간: 2020. 09. 01. ~ 2020. 09. 15.
공람(열람) 장소: 공람(열람) 장소

공람(열람) 장소	열람 범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 7번길 5)	무등산국립공원 광주광역시 구역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9층(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사당동))	무등산국립공원 광주광역시 구역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신안 화순군 화순읍 백운촌길 3-3)	무등산국립공원 전남(화순, 담양) 구역
담양군 생태환경과2층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무등산국립공원 담양군 구역
담양군 가문혁신사무소2층 담양군 가문혁신로 1131)	무등산국립공원 담양군 구역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공람(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의견서 서식: 공람(열람) 장소에 비치. 환경부 및 무등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의견 제출처

구분	제출처
무등산국립공원 광주광역시 구역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우편: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 7번길 5 (전화) 062-230-2021 (이메일) py4822@ktrps.or.kr
무등산국립공원 전남(화순, 담양) 구역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신안 화순군 화순읍 백운촌길 3-3 (전화) 061-570-5721 (이메일) dbeadobe@ktrps.or.kr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구분	일시	장소	주관
무등산국립공원 광주광역시 구역	2020.09.16(수) 10:00~12:00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국립공원 전남(화순, 담양) 구역	2020.09.16(수) 14:00~16:00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

※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장 제한됨
· 주최/주관: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 발표에 관한 사항: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주요내용
※ 다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 격상되는 경우,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참고

-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201-7319),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62-230-2021),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61-370-5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땅 매 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마촌 지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마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마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완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302㎡,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 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매)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마촌 포충로 606-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여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냥**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향구독 (062) 220-055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합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인 적합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수시 모집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전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